

## '99년도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1월 28일(목) 국내 11개 정보통신 관련단체와 공동 주관으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 및 차관, 정보통신부 실·국장, 산하기관장, 그리고 국회의원 및 전임 장·차관, 정보통신업계 대표이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를 맞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해 어느때보다도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25일(목) 타워호텔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186명중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승인 됐다.

제1호 안건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으로 협회 설립 근거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24조”로 변경하고 협회의 영문명칭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Association of Korea”(약칭

CCPAK)를 “Koera Associa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약칭 KAIT)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12회 협회 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사	직위	비고
회장	정장호	(주)LG	대표이사	
부회장 (8명)	유기범	대우통신(주)	"	연임
	곽치영	(주)데이콤	"	
	김흥기	삼성SDS(주)	"	연임
	남석우	(주)콤텍시스템	"	
	김광호	포스테이타(주)	"	
	신동호	한국PC통신(주)	"	
	김영환	현대전자산업(주)	"	
	손용기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이 사 (19명)	김범수	(주)LG-EDS시스템	대표이사	연임
	정병철	LG전자(주)	"	연임
	서평원	LG정보통신(주)	"	연임
	조정남	SK텔레콤(주)	"	
	김용서	농심데이터시스템(주)	"	
	박해수	대상정보기술(주)	"	
	배병관	삼성전자(주)	"	연임
	문광수	새한정보시스템(주)	"	
	정태기	(주)신세기통신	"	
	홍용남	인텍텔레콤(주)	"	
	염정태	(주)쌍용정보통신	"	연임
	박용정	(주)한국경제신문	"	
	이상렬	한국무역정보통신(주)	"	
	하제준	한국정보통신(주)	"	연임
이계철	한국통신	"		
서사현	한국정보네트웍(주)	"	연임	
김현진	(주)현영시스템즈	"		
장문의	호성데이터시스템(주)	"		
김현철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무이사		
감사	박봉규	(주)연희정보통신	대표이사	

협회 설립목적, 협회사업, 협회 회원자격을 개정 법률에 의거한 변경건이 주요 골자다.

변경된 정관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으며 제 1조의 협회 영문명칭(KAIT)은 지난 3월 1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 제2호 안건은 '9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승인의건, 제3호 안건은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었다.

또한 협회는 이 자리에서 '98년 한해동안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큰 공로를 기여한 경원대학교의 주호인교수와 (주)현영시스템즈의 김현진 대표이사에게 상장과 포상을 전달했다.

## Y2K 인증심사 본격화

협회 부설로 설립된 한국Y2K인증센터(원장 : 최성규)는 지난 1월 27명의 제1기심사원 선발에 이어 257명의 제2기 Y2K 인증심사원과 9개사의 심사지정기간을 선정했다.

Y2K 인증심사원은 Y2K 관련 경험, 전문지식, 경력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원 중 인증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으며, 심사지정기간은 현대정보기술, 삼성SDS, 대우정보시스템, LG-EDS시스템 등으로



인증센터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Y2K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25여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한 상태지만, 심사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Y2K인증센터는 이번 심사원 확보와 심사지정기관의 선정으로 인증심사에 적의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심사지정기관 지정 현황〉

부 문	회 사 명	대 표 자
총 합 (IT&NON-IT)	현대정보기술	표 상 수
	(주)LG-EDSTL시스템	김 범 수
	삼성EDS(주)	김 홍 기
	대우정보시스템(주)	김 용 석
	포스테이타(주)	김 광 호
비행정정보시스템 (NON-IT)	현대엔지니어링(주)	이 임 택
	LG산전(주)	이 중 수
	(주)우리기술	김 덕 우
	새한정보시스템(주)	문 광 수

## 국내 기업 Y2k인증 획득 본격화

국내 기업들의 Y2k인증 획득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국내기업들의 Y2k문제 해결 결과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위해 출범한 협회부설 한국Y2k인증센터(원장 : 최성규)는 지난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처음으로 Y2k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석유화학(주), (주)LG화학 등 3개 기업에 대해 Y2k인증서 및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초로 Y2k인증 획득업체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향후 Y2k 문제 해결 결과에 대한 기업들의 인증 요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Y2k인증센터에 신청한 업체들을 보면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과 주요 그룹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Y2k인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3개 기업은 정보시스템부문 및 비정보시스템 부문을 통괄한 종합부문에서 삼성생명보험과 삼성석유화학이 나란히 1, 2호 인증을 획득하였고, LG화학은 정보시스템부문에서 1호 인증을, 비정보시스템 부문에서는 Y2k문제 해결과정의 적합성을 확인 받아 1호 확인서를 수여 받았다.

인증서를 수여받은 업체들은 지금까지 Y2k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차원으로 착실히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간 Y2k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Y2k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에 비해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사례조차 구할 수 없었던 비정보시스템 부문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정보시스템 부문 인증획득은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Y2k인증센터는 급증하고 있는 인증수요에 적극 대처키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인증심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인증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Y2k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많은 기업들이 그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한국Y2k인증센터 (02)582-9449



### 「가트너그룹 한국Y2K인증센터 참여

협회 부설로 설립된 한국Y2k인증센터는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집단, 자문기업인 가트너 그룹과 지난 1월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가트너 그룹을 심사지정기관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가트너 그룹은 미정부 및 선진국가의 Y2k 문제 전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Y2k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통한 Y2k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트너 그룹은 한국Y2k인증

센터의 심사지정기관 참여로 국내외의 Y2k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내기업 및 국가기관의 해외 거점에 대한 지원도 가트너 그룹의 세계 100여개 거점 네트워크를 통하여 퍼 나갈 예정이다.

한국Y2k인증센터는 가트너 그룹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외 인증기관 및 신용평가기관과의 협력과 국내 Y2k 대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4일(목)에는 IBM의 Y2k글로벌 사장이 데이비드 카사노씨가 한국Y2k인증센터를 방문, 국제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문의처 : (02)582-0100, 한국Y2k인증센터)



## IEEE1394 분과위원회 제 2·3·4차 회의 개최

『IEEE1394 표준화 및 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IEEE1394 분과위원회의 제2차 회의(1월8일)·제3차 회의(2월9일)가 본 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IEEE관련 연구자료·번역자료의 제공과 각 회원사의 관련분야 연구개발 현황 설명이 있었으며, 「신기술과 지적재산권」관련 현황 및 분쟁사례에 대한 특허청의 발표가 있었다.

제3차 회의에서는 『IEEE1394 표준화 및 발전계획 수립』관련, 분과위원장(전호인 교수/경원대)의 정보통신부 방문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과, 『IEEE1394와 특허분쟁』에 대한 특허청 서호선 심사관의 주제발표가 이어져, 기술개발 후에 대두되는 특허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제4차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주제발표 『IEEE1394 PHY-CHIP SET 설계기술』(정덕균 교수/서울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 분과위원회 회원 및 관계 참석자들의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신규 가입 회원사의 톨·솔루션 소개도 있었다.

3월 현재, IEEE1394 분과위원회는 『IEEE1394 표준화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56개 사(기관/교)의 실무책임자 등 84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동 관심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정보교류 확산, 특허 관련 국내의 대응방안과 대정부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협회 정보화지원팀(송윤철 팀장)에서 이의 기획

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98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발간

협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사업별, 지역별 사업규모와 시장현황을 조사해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기업의 경영전략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98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협회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 종합작성한 이 통계집은 ’98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기간통신서비스(유선통신, 무선통신), ▲부가통신서비스(고도팩스, 데이터네트웍, 부가통신망, 온라인정보처리, 음성전화정보, 주문형정보, 기타), ▲방송서비스(지상파, 유선방송, 위성방송, 기타), ▲정보통신기기(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패키지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서비스, DB제작서비스, 정보검색대행서비스)분야이다.

자본금, 출하(매출)액, 종사자수, 비용, 유형고정자산 등 16개 항목을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또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은 기업체 단위로 조사했으며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은 사업체 단위로 각각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은 본 협회가 타계식 및 우편조사를,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통계청이 전국의 읍, 면, 동 통계 담당자를 통해 타계식으로 조사했다. 총 470 페이지로 구성된 ’98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의 가격은 13,000이다.

※문의 : 조사통계실 (02)580-0601~2